

Vol.598

2021

새로운 부산상의
통합과 혁신의 새 시대로

부산상의

BCCI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부산상공회의소가 後見人 스타트업의 든든한 후견인이 됩니다

“BCCI Startup Initiative”

부산상의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 후견인 後見人

01

부산상의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02

스타트업 네트워킹 환경 조성

부산경제포럼 등 부산상의에서 개최하는 주요 포럼행사에 지역 내 주요 스타트업을 초청, 창업기업을 위한 포용적인 포럼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산상의의원과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선후배 기업인간의 교류를 확대합니다.

선배기업인과 스타트업 기업인간 선후배 후견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타트업기업인의 부산지역 기업인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제고합니다.



03

부산 스타트업 데이 99도

지역 내 주요 스타트업 유관 기관이 선별하여 추천한 우수 스타트업을 지역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한번 큐레이션하여 시연합니다.

부산상의의 주요 네트워크 구성인인 지역 기업인에게는 스타트업 관심 증진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스타트업에게는 지역 내 자본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및 지역 산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역 기업인이 선정한 유망 스타트업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합니다.

99°C BUSAN STARTUP DAY 부산 스타트업 데이

01

오늘을 보다 見

- 2 **BCCI 뉴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부울경 경제계 공동선언식 개최
부산상의 해양수산부의 무리한 북항재개발 사업변경 시도 중단 촉구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부산 대표기업 2030부산세계박람회 후원 기부금 전달식 개최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장인화 회장, 콜롬비아 부통령과 오찬 간담회
주한 루마니아 대사 예방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예방
- 12 **회원기업 서비스**
2021년 하반기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해소 건의 활동
부산상공회의소 제11기 글로벌 경제인 과정 모집 안내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서비스 지원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기념행사 포상 서비스
부산상공회의소 의료지원 서비스
기업 맞춤형 전자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회원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지원
GS1 표준바코드 활용 교육 지원
FTA활용지원 교육 안내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지원

02

내일을 듣다 聽

- 24 **기업포커스**
(주)골든블루
- 28 **회원뉴스**
금양 / 와이씨텍 / 골든블루 / BNK금융그룹 / 은산해운항공
비엔그룹대선주조 / 부산항만공사 / 에어부산 / 한국거래소 / 동성그룹
한국남부발전 / 한일냉장 /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3

미래를 열다 開

- 36 **경제브리핑**
부산직장인이 바라본 우리회사 기업문화실태 조사
부산지역 기업 진출입 실태 분석
위드 코로나에 따른 부산 대규모 집객시설 및 항공·여행업계 동향 모니터링
- 42 **BCCI 리포트**
부산상의 인포
대한상의 브리프
경영/노무/특허/관세
- 52 **안내**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산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참여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부산상의 통권 598호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할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기획디자인 (주)프린테크 T. 051.301.3113~4 인쇄처 (주)프린테크

* 부산상의에 게재되는 각종 기사는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B C C I N E W S 01	2021. 10. 5.(Tue)
--------------------------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부·울·경 경제계 공동선언식 개최

부·울·경 상의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아

코로나로 인해 범국민적인 유치열기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사업이 부산·울산·경남 경제계의 공동 지지선언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0월 5일(화) 11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부·울·경

경제계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공동선언식은 지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원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이 전국적인 관심과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울산과 경남 경제계에 공동지지 선언을 요청하였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울산상의 이윤철 회장과 경남상의협의회 구자천 회장이 흔쾌히 동참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2030세계박람회는 개최지 확정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 러시아 모스크바와 대한민국 부산에 이어 최근 이탈리아 로마까지 유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경쟁국 간의 유치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를 통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바이러스, 기후변화, 사회양극화 등의 이슈를 선점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부·울·경 경제계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부·울·경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개월의 개최기간 동안 200여개에 달하는 참여국가와 3,200만명 이상의 글로벌 방문객이 함께하는 메가 이벤트로 6조에 달하는 경제 효과와 더불어 미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역기업 브랜드의 세계화와 지역 기반의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축 형성으로 지역 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형제와 다름없는 울산과 경남 경제계가 지지 의사를 밝혀줌에 따라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기분"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동남권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 될 것인 만큼 부·울·경 경제계도 유치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 성과도 부·울·경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부산상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2020두바이 세계박람회에 지역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박람회 현장을 참관하고, 두바이, 아부다비 등 주요도시 경제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해양수산부의 무리한 북항재개발 사업변경 시도 중단 촉구 성명

해수부 장관, 대통령 임기 내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완공 약속 지켜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0월 14일(목),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북항 1단계 사업변경안에 대해 북항재개발과 2030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두 개의 국가사업을 좌초시킬 우려가 크며 사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해수부는 석연찮은 내부감사로 북항 1단계 사업을 중단 시켰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해수부 장관은 직접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해수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취지가 낙후된 환경으로 고통 받던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해수부의 변경안은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재개발법을 이유로 트램사업의 인정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비용으로 국한한 부분도 근거로 삼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범위를 철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량구입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컨텐츠 구축사업 중 이번엔 문제가 되고 있는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공원부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컨텐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해당 사업부지를 항만시설부지로 용도변경 후 무리하게 항만친수시설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트램노선 변경으로 인해 전체 사업면적은 늘어났지만,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보행로, 공공용지, 공원, 해양문화지구 등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업면적은 감소한 반면 항만시설 등 해수부 관할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부가 시민과 관련시설 이용객의 편의는 뒤로 한 채 사실상 항만의 기능을 상실한 북항에서 땅장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의 조직 이기주의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북항재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북항을 개최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다. 이에 지역경제계는 해수부장관에 대해 10차 변경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 사업을 포함한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약속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 하고, 북항재개발의 사업이익이 부산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현재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감사원에는 북항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감사와 엄중한 문책으로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였으며, 정부와 지역정치권에도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북항 1단계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공식적인 약속이 몇 개월 만에 뒤집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역민심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만큼 이제라도 장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약속한 북항 1단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항재개발 좌초시키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찬물 끼얹는 해양수산부의 무리한 사업변경 시도 중단 촉구 부산경제계 성명

최근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12월 22일 제9차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고시에 이어 채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내부감사 결과를 빌미로 또 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포함한 변경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빠른 준공을 염원하는 지역경제계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리한 내부감사를 빌미로 적법하게 진행 중이던 북항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킨 해수부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관련자 문책 등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당시 해수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부감사는 조직 내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해수부 장관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차 사업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의 축소 및 준공연장을 포함한 또 다른 변경안을 내놓은 것은 해양수산부의 행정실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기본 취지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북항과 주변지역 연계개발을 통한 원도심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북항재개발에 따른 편익은 철저히 부산시민에게 귀속되어야만 한다. 9차 사업변경 당시 트램은 준공이후 입주기업 및 북항 이용객 편익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역에서부터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확충한다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 항만재개발을 이유로 트램사업의 인정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비용으로 국한하였는데, 이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의 범위를 철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만큼 명백하게 해수부가 잘못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공공컨텐츠 구축사업도 직전 변경고시에서 북항 조기 활성화와 관광명소 변모를 위해 사업구역 내 새롭게 유치 가능한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번에 해수부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테포츠 콤플렉스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공원부지 내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적 컨텐츠 사업을 해수부가 항만친수시설로 둔갑시켜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해당 사업부지를 무리하게 항만시설부지로 변경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변경안에서 트램노선 변경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행로, 공공용지, 공원, 해양문화지구 등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업면적은 감소한 반면 항만시설 등 해수부 관할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해수부가 시민과 관련시설 이용객의 편익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땅장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해수부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북항재개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미 5개월 이상 내부감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은 현재도 막대한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부산경제계는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북항재개발과 2030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두 개의 대형 국가사업이 해수부의 뭉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차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고,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포함한 북항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민들의 희생에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의 사업이익이 부산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있도록 실시협약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북항재개발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역정치권도 2030세계박람회 유치경쟁에 모스크바에 이어 최근 로마까지 뛰어난 만큼 내년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의 개최예정지 실사에 대비하여 북항 1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14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화 외 의원 일동

B C C I N E W S 03	2021. 11. 10.(Wed)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11월 10일(수)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부·울·경 경제계 대표로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장인화 회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인상된 점을 전하며,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도 “부울경 경제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큰 틀을 구축하고자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외에도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4개의 도시가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유치열기 확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국가균형발전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공감을 표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한준호, 이소영, 강훈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 인천상의 심재선 회장, 대전상의 정태희 회장이 참석하였다.

부산 대표기업 2030부산세계박람회 후원 기부금 전달식 개최

장인화 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원로기업인들 역할 강조하며 후원 요청
원로기업인들 한 목소리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와 부산시는 11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7층 의전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기업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기업인들에게 먼저 나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원로기업인들이 흔쾌히 동참하면서 성사되었다. 지난 8월 부산상의-부산시 간담회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를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기금 마련에는 부산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원로기업인 11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별 1억원씩 총 11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부산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참여기업인은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주)동일 김종각 회장,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 (주)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경동건설(주) 김재진 회장, (주)인스틸 송규정 회장, (주)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

세운철강(주) 신정택 회장, 스타자동차(주) 유재진 회장, 아이에스동서(주) 권혁운 회장 등 11명이다.

원로기업인들은 전달식에서 한 목소리로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소중한 선물이며, 부산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원로기업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부산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계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보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전달한 후원금 11억원 외에 추가로 지역 주요기업과 부산상의 의원들의 릴레이 후원금 전달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상의는 지난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울·경 상의회장 유치지지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데 이어 유치열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부산상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상공인 시상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1월 26일(금) 11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제39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부산산업대상은 1983년부터 부산 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업 경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거둔 상공인을 매년 주요 부문별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올해 제39회를 맞은 부산산업대상은 특별공로부문, 경영부문, 기술부문에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특별공로부문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 ▲경영부문 효성전기(주) 정진근 회장 ▲기술부문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별공로부문 수상자(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은 44년간 성우하이텍을 전 세계 36개의 사업장에서 1만 7천여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향토기업으로서 각종 장학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영부문 수상자 효성전기(주) 정진근 회장은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모터 국산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확대와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기술부문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소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사업분야 개척과 기술혁신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는 동안에도 지역경제와 기업 성장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지역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부산상의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등 지역 주요 상공인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상식은 워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특별공로부문 |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



경영부문 | 효성전기(주) 정진근 회장



기술부문 |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

B C C I N E W S 06	2021. 11. 11.(Thu)
--------------------------	--------------------

장인화 회장, 콜롬비아 부통령과 오찬 간담회

장인화 회장, 콜롬비아 정부에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지 요청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11월 11일(목) 오후 1시, 부산롯데호텔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참전한 콜롬비아의 청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 Lucia Ramirez) 콜롬비아 부통령 일행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자리는 부산과 콜롬비아 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가 자리를 마련하였다. 간담에 참석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은 평소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과 대선조선(주) 이수근 대표도 지역의 학계와 조선업계를 대표하여 함께 참석하였다.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은 부산의 대학이 해양과 조선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콜롬비아가 원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좋은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였으며, 대선조선(주) 이수근 대표는 최근 대선조선이 콜롬비아 조선소 코텍마레와 진행 중인 주요 설비의 자체 건조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사업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도 간담을 통해 부산지역의 조선과 해양산업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이에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도 “콜롬비아가 부산의 주력인 조선-해양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부산이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도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콜롬비아도 부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간담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한 지역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 기회 모색과 양 지역의 교역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한 루마니아 대사 예방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10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부산상의를 예방한 체자르 아르메아누 루마니아 대사를 접견하였다.

접견에서는 지난 9월 주한 루마니아 대사로 부임한 체자르 아르메아누 대사의 부임 인사를 비롯하여 부산과 루마니아 간 경제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환담을 통해 장인화 회장은 부산항과 루마니아의 항구도시 콘스탄차 간에 교류를 확대와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 상의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 상의와 부산상의회간의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체자르 아르메아누 루마니아 대사에게 제안하였다.

아울러 부산은 자동차, 조선, 철강, 해운, 수산 등에 강점이 있어

루마니아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도시라고 소개하며, 루마니아에서도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산의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으며, 루마니아도 BIE 회원국인만큼 2030세계박람회에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날 접견 자리에는 루마니아 부산 명예영사를 역임하고 있는 (주)진영푸드 최강호 회장과, 한국-루마니아 교류협회장을 맡고 있는 (주)엠티오 김창훈 대표도 함께 하였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예방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11월 5일(금) 오후 2시 부산상의를 예방한 바쿿 듀쎬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를 접견하였다.

접견에서는 부산과 카자흐스탄 간 경제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환담을 통해 장인화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소부장에 많은 강점들이 있는만큼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부산에 대학이 많은 만큼 카자흐스탄과 산학연 협력 등 다양한 교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도 BIE 회원국인만큼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1년 하반기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해소 건의 활동

① 사업다각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업종 완화 (2021. 7.1. 건의처: 부산광역시)

▶ 건의요지

지자체의 유명무실해진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제도를 보완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사업다각화와 업종전환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②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위한 동남권 상의 공동 건의 (2021. 7. 5.) (건의처: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 건의요지

처벌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법규 수범자의 수용성을 높여 궁극적인 목적인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동남권 상의가 공동으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③ 해운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2021. 8. 23. 건의처: 국회)

▶ 건의요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④ 동남아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철회 타원(2021. 9. 7. 건의처: 공정거래위원회)

▶ 건의요지

중·소해운사의 도산은 물론 코로나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남아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철회를 요청하였다.

⑤ 해운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 성명서(2021. 9. 30. 건의처: 국회)

▶ 건의요지

부산과 인천 지역상공인들은 국회가 지역의 의견을 존중해 해운법 개정안을 9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하였다.

⑥ 부산시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대상 확대 검토 요청 (2021. 10. 13. 건의처: 부산광역시)

▶ 건의요지

지역의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의 안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하였다.

⑦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및 지원 사업 강화(2021. 10. 13.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건의요지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요율 하향 조정은 물론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중소기업만의 차별화된 구조를 편성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규모 확대와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⑧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2021. 10. 13.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요지

선용품 공급업 활성화와 항만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⑨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2021. 10. 13. 건의처: 기획재정부)

▶ 건의요지

2 ~ 200억 사이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감세 혜택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경영 자금 유동성 및 재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토록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하도록 건의하였다.

⑩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2021. 10. 13. 건의처: 기획재정부)

▶ 건의요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 법인세 감면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⑪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021. 10. 13. 건의처: 기획재정부)

▶ 건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조기극복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각종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⑫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2021. 10. 18.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건의요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과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은 전기 생산 지역이 감당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소비만 하는 지역 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건의하였다.

⑬ 친환경선박 전환사업 제도개선 건의(2021. 10. 18. 건의처: 해양수산부)

▶ 건의요지

친환경선박법의 주요취지에 맞춰 실질적인 조선해운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자 선정 시 국내 중소조선사 발주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자의 노후선박 처분기한을 친환경선박 신조선 인도 시까지 유예를 요청하였다.

⑭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건의(2021. 11. 3.)

(건의처: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 건의요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차등적용 및 비수도권에 소재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추가 감면을 건의 하였다.

⑮ 선복 확보와 물류비 저감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및 지속 건의(2021. 11. 4. 건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요지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선복 부족과 물류비 급등의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강화 및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⑯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대란 대응 정부지원책 마련 요청(2021. 11. 4. 건의처: 기획재정부)

▶ 건의요지

요소수 공급 부족 및 품귀로 인한 가격급등 상황과 물류대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요소수 공급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제11기 글로벌 경제인 과정 모집 안내

과정 소개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은 지난 2011년 시작으로 10여 년간 470여명 원우들의 탄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CEO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습니다. 동 과정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최신 트렌드의 지식과 기업경영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생존과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폭넓은 커뮤니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특징

“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인 양성프로그램 ”

- ▶ 차별화된 국내 산학관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 덕망 있는 국내 명문대학의 현직 교수 및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
 - 최신 트렌드의 주제 선정을 통한 최신 강좌
- ▶ 성과를 극대화하는 모듈식 프로그램
 - 경제, 경영, 인문, 리더십, 교양 등의 모듈식 강좌
 - 성공 CEO, 고위정책담당관 및 지역 주요기관장 등 초청 특강 시행
- ▶ 수준 높은 인적 네트워크 제공
 - 정규과정 외 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류기회 제공
 - 지속적인 기수별 모임 관리 지원

주요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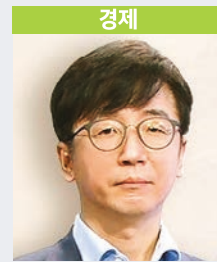
심리학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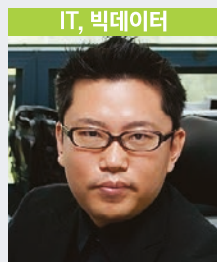
협상

류재언
변호사 협상연구소장



경제

송병권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IT, 빅데이터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공학과 교수



IT, 빅데이터

윤성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IT, 빅데이터

정하웅
KAIST 물리학과 교수

모집요강

모집인원 50명 내외

교육기간 2022년 3월 15일~11월 29일
 ※ 상반기(3/15~6/28), 하반기(9/6~11/29)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9:00부터 2시간

교육대상 지역기업 CEO 및 임원/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2세 경영인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및 전문직 종사자/차세대 리더그룹

교육비 회원사 : 2,750,000(VAT포함) / 비회원사 : 3,850,000(VAT포함)
 ※ 원우회비 및 해외연수비 별도

입금계좌 부산은행 031-01-030154-3 (예금주 : 부산상공회의소)
 ※ 카드결제 가능 (방문 필)

모집일정 원서접수 : 2022. 1. 28.(금) 까지
 수강등록 : 2022. 2. 14.(월)~2. 18.(금)
 개 강 식 : 2022. 3. 15.(화)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공지사항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ku511@korcham.net) 제출 또는 우편 송부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9층 회원사업본부

신청서류 ① 수강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증명사진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문의처 및 담당자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구취혁 차장 (TEL. 051-990-7063, FAX : 051-990-7099)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서비스 지원

사업목적

산업 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청년실업 및 지역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

지역기업 구인수요 중심 기술교육훈련 수료생 인력 공급 지원

- ▶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등 9개 직업교육기관과 전문인력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지원내용

지역기업 구인 및 기술전문인력 구직 POOL 등록·DB관리를 통한 구직자 알선·상시 매칭·일자리컨설팅 지원

채용공고 홍보 및 구직자 채용연계·알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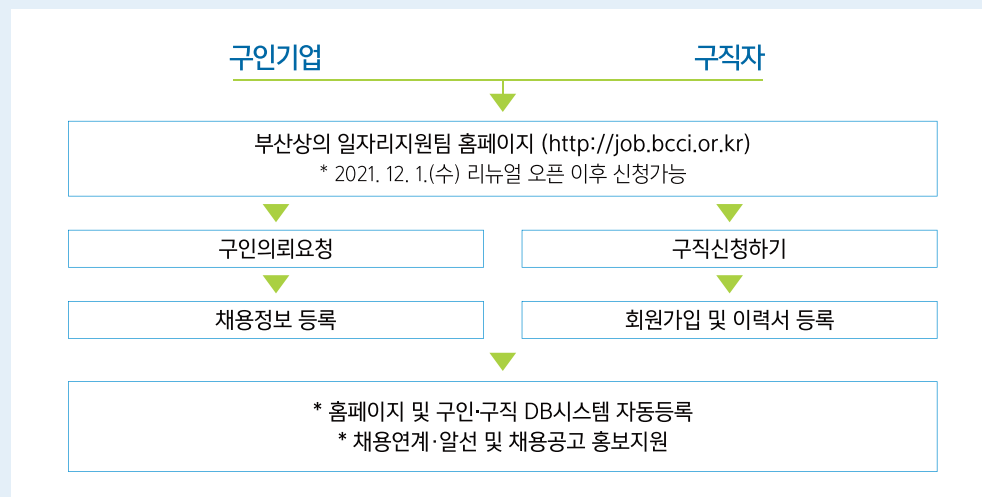
- ▶ 부산상의 일자리 플랫폼은 부산 주력업종 관련 기술교육훈련 수료생 등 전문인력을 등록·알선·매칭지원

부산상의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 ▶ 구인기업이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전문인력 채용 시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신청가능 (2021. 12. 31.까지 IT직무청년 채용시)

신청방법

일자리플랫폼 (<http://job.bcci.or.kr>)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Tel. 051-990-7084)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기념행사 포상 서비스

회원사의 의미있는 순간, 부산상의회가 함께 합니다.

회원기업 임직원의 사기고취를 위해 회원기업의 각종 기념행사(창립일, 시무식, 종무식, 근로자의날 등) 개최 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명의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상의 회비 완납 당연회원, 임의회원 및 특별회원 임직원
단, 특별회원의 경우 소속 회원사 중 상의 회비완납기업의 임직원 포상신청 가능

포상시기

연중 수시 (회원기업의 희망일)

신청절차

- ① 포상 신청(회원기업)
 - 상의 담당자와 필히 전화 사전협의 신청공문 작성, FAX 제출 (공적조서 생략)
 - 공문 포함사항 : 기념행사명 / 일시 / 장소 / 포상대상자 성명 / 소속 / 직위 등
- ② 접수 및 제작(부산상의)
 - 공문 접수 및 검토, 회원사 여부 확인 표창장 제작
- ③ 표창장 및 부상품 수령(회원기업)
 - 표창장 및 부상품 방문 수령

신청 및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Tel. 051-990-7072~5 / Fax 051-990-7069)

부산상공회의소 의료지원 서비스

부산시내 대형병원의 특화된 의료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그 가족의 건강을 보호 및 질병으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부산소재 8개 주요 대형병원과 연계해 회원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종합검진,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의료 건강강좌 등 각종 의료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및 직계가족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 종합검진 10~20% 할인 ※ 관련 법에 의거 일반 외래 진료 할인 제외

참여병원



신청절차

신청서 및 증명원 준비	신청확인	증명원 제출
① 신청서(서식) ② 재직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Tel. 051-990-7075 Fax. 051-990-7069	해당 병원 원무과 제출 및 수혜

※ 본 서비스 증명원은 반드시 원무과 수납 전 사전제출바라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Tel. 051-990-7072~5 / Fax 051-990-7069)

※ 신청서는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업 맞춤형 전자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기업을 위한 입찰·낙찰 정보를 맞춤 지원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당사업 분야에 맞는 입찰정보만을 선별한 맞춤형 입찰·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및 입찰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확대 및 공공조달 관련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부산으로 등록된 기업

지원기간

연중 수시 지원

지원혜택

- 국내에서 시행하는 입찰·낙찰정보를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무상 제공
- 입찰·낙찰 전문콜센터(☎1644-9927)를 통한 입찰상담지원
- 전자입찰 전 과정에 대한 기업 담당자 실무 교육 시행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맞춤형 전자입찰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bid.bcci.or.kr>)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참여현황

전자입찰정보서비스 이용 부산내 905개 기업

신청문의

회원사업본부 회원서비스팀(Tel. 051-990-7065)

회원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지원

회원기업이 필요로하는 교육 서비스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해드립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업체의 기업경영과 인재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직무 교양 법정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강사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방문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액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무료교육지원 사업이오니 임직원을 위한 사내교육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부산상공회의소 당연회원사

지원기간

연중

지원혜택

맞춤 방문교육비 전액지원(40~100만원 상당)

교육내용

- 인사조직 : 조직활성화, 리더십, 변화혁신, 문제해결, 인간관계, FUN경영 등
- 서비스·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직장예절, 비즈니스 코칭, 보이스컨설팅, 고객만족 등
- 금융·재테크 : 재무설계, 은퇴설계, 연령별 투자전략, 부동산 자산관리 등
- 기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윤리경영

교육장소

당연회원업체 강당, 회의실 등 협의가능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bccci.or.kr>)

신청문의

회원사업본부 회원서비스팀(Tel. 051-990-7065)

GS1 표준바코드 활용 교육 지원

기업들에게 필요한 GS1 표준 바코드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상품 바코드인 GS1(Global Standard No. 1) 코드에 대한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산 및 인근 지역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바코드 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교육은 바코드 사용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기업들이 더 쉽고 빠르게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역기업 전체

지원기간 연중

지원혜택 교육 무료지원

교육내용

- 상품식별코드의 체계, 부여 기준
- 표준물류코드의 필요성과 이해
- 유통표준코드 통합관리시스템
- 바코드 인쇄위치와 방법
- 바코드 검증서비스

교육일정 매주 목요일 14:00

교육장소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교육실적 (주)보너 등 27개사

신청문의 회원사업본부 회원서비스팀(Tel. 051-990-7065)

FTA활용지원 교육 안내

- 교육기간** 연중 수시(매년 3월 ~ 12월)
- 개최횟수** 연간 14회(연간 수시 시행, 월평균 2회)
- 교육대상**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FTA업무 담당자

종류 및 주요내용

교육명	주요내용
초보자를 위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교육	·FTA개념 및 활용 절차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FTA활용전문가 양성교육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FTA활용실습 및 검증 대응방안
한-중 FTA활용전문가 양성교육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작성 유의사항 ·한-중 FTA원산지증빙서류 보관법
FTA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주요 협정별 사후검증 대응방안 ·FTA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
FTA활용을 위한 수출입통관 실무 교육	·수출입 실무 개요 ·FTA를 활용한 수출입 통관실무 실습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	·무역에 필요한 상업서류 작성법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는 서류 구비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관세환급 실무 교육	·관세환급 개요 및 방법 ·수출입 관세환급 처리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FTA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강화를 통한 원활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 부산지역 기업체의 FTA 관련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특혜 관세 후 사후검증 대비
 - FTA 교육 참여시 부여되는 교육 점수 획득을 통한 부산기업의 원활한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지원

교육문의 부산상공회의소 FTA지원센터 051-990-7016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지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를 부산상회가 지원해드립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기업을 위한 화상회의실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오니 국내외 원격회의, 비대면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연중 수시지원

지원대상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이용장소 부산상공회의소 4층 화상회의실

지원내용
- 화상회의실 무료 이용 제공 (수용인원: 최대10명, 동시접속: 최대100명)
- 자체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프로그램 사용 가능

신청방법 화상회의실 예약포털(<http://www.boms.co.kr>) 접속 신청

신청문의 회원사업본부 회원서비스팀 (Tel. 051-990-7065)

부산상공회의소 화상회의실



국내 주류산업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주)골든블루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주)골든블루는 새로운 미래,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2003년 창립되어 여러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 2011년 지금의 기업명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주)골든블루는 그간 지속성장을 거듭해 국내 주류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주)골든블루를 지탱해주는 뿌리 산업인 위스키 시장에서는 리딩 기업으로 오랫동안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이외에도 맥주, 증류주 등을 출시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나라로 수출을 전개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주)골든블루는 이제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주류회사로 비상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중이다.

위스키 '골든블루'의 등장, 변화가 없던 한국 위스키 시장에 저도수 트렌드 포문을 열다.

(주)골든블루 발전에 일등공신 브랜드인 위스키 '골든블루'는 2009년 출시된 이후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스키로 이름을 올렸다.

출시 당시, 40도 이상의 높은 도수의 제품만 존재하던 국내 위스키 시장에 36.5도 저도 위스키 '골든블루'의 등장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골든블루'는 순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와 한국인의 주류 음용 습관을 반영하여 탄생한 만큼, 변화가 일체 없던 국내 위스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골든블루'의 성장세는 매년 눈에 띄게 발전했다. '골든블루'는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으로 만들어진 높은 품질과 부담없는 도수로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 출시 이후 연속 상승 기세를 거듭했고, 역성장하는 위스키 시장과는 반대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골든블루'는 국내 정통 위스키 시장에서 1위에 오르고,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단일 브랜드로 판매량 1위에 등극해 한국 주류업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거대한 자본력의 글로벌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새로운 컨셉을 가진 제품에 대한 니즈가 '골든블루'의 구대로 이어져 2020년, (주)골든블루는 국내 1등 위스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2020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골든블루 회사 전경



골든블루 브랜드 라인업

현재, (주)골든블루가 개척한 저도 위스키 시장의 규모는 국내 전체 위스키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트렌드를 바꾼 (주)골든블루는 ‘골든블루’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계속적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이 위스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도에는 ‘골든블루 사피러스’를 리뉴얼하여 출시했고, 2021년 상반기에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를 리뉴얼해 패키지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화하고, 맛의 깊이감도 한층 높였다.

또한, (주)골든블루는 위스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젊고 모던한 위스키 ‘팬텀’ 브랜드를 2016년도에 론칭하기도 했다. (주)골든블루의 노력과 차별화 끝에, ‘팬텀’은 MZ세대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차세대 위스키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 위스키 시장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주)골든블루는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 위스키 문화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골든블루’, 8개국으로 수출되어 다양한 해외 소비자 만나.

세계 위스키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다. 더군다나 2008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골든블루는 해외

수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 모색이 빅스텝 스텝이라는 답을 얻었다.

(주)골든블루는 ‘골든블루’를 출시한 다음해인 2010년에 중국으로 첫 해외 수출을 단행했다. 중국에서 국제적인 소비 중심지인 상해를 집중 공략해 럭셔리한 패키지와 부드러운 풍미를 인정받아 수출한지 한 달 만에 상해 내 한국산 위스키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새로운 수출 국가를 모색한 (주)골든블루는 2011년 베트남으로 수출국을 확대했다. 한류 열풍속에서 ‘골든블루’도 신바람을 타고 베트남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결과 ‘골든블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형 위스키 중에서 판매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성장 잠재력인 큰 나라인 베트남에서의 호재로 (주)골든블루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계속적으로 수출국을 늘려갔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류시장인 미국에 한국 로컬 위스키 최초로 진출해 ‘골든블루’의 세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인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주)골든블루는 현지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골든블루’ 판매 지역을 계속적으로 넓혀가 한국 위스키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주)골든블루는 면세점 시장도 꾸준히 공략해 소비자 접점을 넓혀 가고 있다. 2018년에 처음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에 진출해 해외 소비자들이 ‘골든블루’를 만날 수 있는 교두보를 넓혔으며, 올 8월에는 중국 하이난

면세점과 판매 계약을 맺어 해외 면세점 진출에 성공했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고 트래블 버블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춤했던 해외 수출 길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골든블루는 내수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수출 비중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고, 세계 주류산업에서도 뒤처지지 않은 강한 대한민국 주류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류사업 다각화를 통해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주류회사' 목표 가까이.

(주)골든블루가 우리 술의 세계화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세계 유명 주류의 현지화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2017년부터 수입,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세계 4대 맥주 회사로 유명한 칼스버그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해 5월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를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다.

'칼스버그'는 1986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국내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 브랜드 인지도가 약했다. '칼스버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종인 맥주 시장에 진출한 (주)골든블루는 맥주 중심의 영업 조직을 새로이 신설하고 신규 인력을 확충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은 물론, '칼스버그'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전개해 (주)골든블루가 수입, 유통한지 3년도 안돼 '칼스버그'는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10위 브랜드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맥주 시장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주)골든블루는 2020년에는 지역특산주 업체와 손을 잡고 '훈'을 출시해 고급 증류주 시장에 뛰어 들었다. (주)골든블루는 우리 술이 가진 고전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패키지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증류, 숙성한 좋은 품질을 내세워 '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훈'의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해 더 큰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골든블루의 거침없는 행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올 11월 (주)골든블루는 미국 몰슨 쿼어스와 라거맥주 '밀러', 밀맥주 '블루문'의 독점 수입,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서 맥주 시장에서의 (주)골든블루의 영향력을 높여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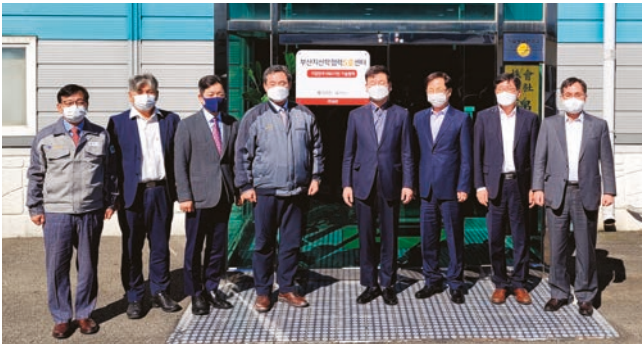
불경기와 소비 심리 악화, 급변하는 트렌드로 현재 많은 주류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대응책 찾기에 고심을 하고 있다. (주)골든블루는 지금과 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혁신으로 트렌드를 앞서 나가고, 한국산 주류가 세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주류회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골든블루 김동욱 대표



(주)금양

부산지산학협력 브랜치 5호 센터 개소



정밀화학공업 전문 기업 금양(대표 류광지)이 수소연료전지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주)금양은 10월 19일(화) 지자체·산업계·대학협력을 지원하는 다섯 번째 부산지산학협력 브랜치 센터로 선정되어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산학협력 브랜치 센터는 부산지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자체·산업계·대학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설치돼 지자체·산업계·대학 협력을 근접 지원한다.

(주)금양은 지산학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산지산학 브랜치 5호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고도화를 위한 '기업 연계 수소 R&D' 신규기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정책을 연계하여 신산업 발굴 및 육성하고 수소 관련 지자체·산업계·대학 협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산학협력 브랜치 5호센터는 금양이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수소기술퀀텀센터에 위치하며, 금양은 수소기술퀀텀센터에서 수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업해 세계 최초 모빌리티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한다.

(주)금양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산학협력 브랜치 5호센터 선정으로 지산학 협업 인프라가 형성돼 다양한 수소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사의 수소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간 연계를 통해 R&D를 진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수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와이씨텍

박수관 회장 베트남 총리 표창 수상



(주)와이씨텍은 베트남 명예총영사를 맡고 있는 박수관 회장이 10월 20일(수) 부산경남 베트남명예총영사관에서 베트남 팜민찐 베트남 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날 표창장 수여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여 응웬부 동 주한베트남 대사가 직접 부산경남베트남 명예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박수관 회장에게 수여하였다.

박수관 명예총영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부산 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를 맡아 주한베트남대사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증진에 기여해왔으며, 아울러 호치민시와 부산시 간의 우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투자 무역 촉진,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또한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공 및 부산·경남 지역의 베트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베트남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여러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베트남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베트남 정부와 함께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전염병 퇴치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베트남 정부에 적극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지역기업의 베트남 투자 협력을 이끌어내어 모범적인 민간외교 활동을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 최고 우호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주)골든블루

코로나 극복 위한 임직원 헌혈 캠페인 시행



▶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 캠페인에 임직원 동참

▶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한다’ 나눔의 경영철학 실천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주)골든블루(대표 김동욱) 임직원들이 지난 10월 18일(월) 두번째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어 혈액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골든블루는 전국적인 혈액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시행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부산 센터 사무소가 위치한 해운대구 센텀 사이언스파크 빌딩 앞에 헌혈 버스를 배치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골든블루는 올해 2차에 걸친 헌혈 캠페인으로 모인 헌혈증을 연말에 혈액 수급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기부해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예정이다.

(주)골든블루 김동욱 대표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값진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주)골든블루는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왔다. 박용수 회장이 강조하는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나눔 경영 철학 아래, 2016년도에 “Growing and Building for tomorrow,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선포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왔다.

특히, (주)골든블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청년 단체인 한국청년 회의소(한국JC)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역량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잠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You & I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골든블루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슈 확산을 위해 여러 사회적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등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에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김동욱 대표가 참여한 바 있다.

BNK금융그룹

부울경 경제계와 함께 '동남권 ESG 포럼' 창립



▶ 동남권 기업의 ESG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에 뜻 모아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은 10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와 함께 '동남권 ESG 포럼'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NK와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동남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에 힘을 모으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환경부 한정애 장관, 부산상공회의소 이영철 상근부회장, 울산상공회의소 이윤철 회장,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구자천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지완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역 상공인과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동남권 ESG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동남권은 제조업이 주력산업이므로 탄소중립 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포럼을 밑거름으로 기업과 금융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 ESG경영을 선도하는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기초 강연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이 초청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아대학교 조용언 교수와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동남권의 대응전략', '동남권 기업의 ESG 전환과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BNK경제연구원이 동남권 6개 주력업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인식 및 대응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1.3%가 '들어는 봤지만 개념은 잘 모름', 34.0%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응답하는 등 동남권 기업의 ESG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각 부분별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환경 부문의 경우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동남권 ESG 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기업인들에게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인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은산해운항공(주)

부산시 초·중·고 체육장학생에게 장학금 후원



은산해운항공(주)은 부산시체육회와 함께 10월 26일(화) 부산시체육회관에서 초·중·고교 학생선수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부산시체육회가 올해 지원하는 3억원의 장학금 중 두 번째로 전달하는 행사로 이번 장학금 전달은 은산해운항공이 후원하여 부산시체육회가 선발한 체육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육상, 축구 등 19개 종목 28개교 50명으로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1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은 “앞으로도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CSR(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의 체육꿈나무들과 함께 성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체육꿈나무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비엔그룹 · 대선주조

15년째 ‘위아자 나눔장터’ 동참



▶ 임직원들이 기증한 700여 점 물품 주최 측에 전달

비엔그룹·대선주조는 10월 29일(금) 그룹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마련한 기증품과 조성제 회장이 준비한 명사기증품을 아름다운 가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엔(BN)그룹·대선주조는 이번 참여로 15년째 국내 최대 규모 나눔 행사인 ‘위아자 나눔장터 2021’에 동참하였다. 전 계열사 임직원이 전달한 기증품은 도서, 의류, 장난감, 소형 전자기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조성제 회장이 기증한 28년산 프리미엄 매실주 ‘C(시원)매실골드’는 명사기증품으로 온라인 경매에 오를 예정이다. 대선주조가 특별히 제조한 C매실골드는 국내산 청매실 원액 100%로 제조해 맛과 품미가 뛰어난 한정판 비매품이다. 기증품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 지역 내 ‘아름다운 가게’ 매장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국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비엔그룹 조성제 회장은 “임직원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15년간 위아자 나눔장터 동참이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에 나눔과 환경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위아자 나눔장터는 물건의 재사용 및 재순환을 통해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5년부터 중앙일보와 JTBC가 매년 창간기념일을 전후해 개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후원금 1,000만원 전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11월 9일(화) MBC 기부 프로그램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후원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강준석 BPA 사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노희현 부산지역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 성금을 후원해 오고있다.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BPA 강준석 사장은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환아들의 쾌유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우리 공사는 꾸준히 난치질환 아동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더 나아가, 나눔 문화 확산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국제선 운항 본격 기지개!” 부산-괌 노선 운항 재개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이 11월말 부터 부산→괌 노선 운항에 나서며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에 착수하였다.

에어부산은 11월 27일(토)부터 부산→괌 노선을 주 1회(토)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의 부산-괌 노선 재운항은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한 지난해 3월 5일 이후 약 20개월 만이다. 운항 일정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5분에 출발해 현지 공항에 오후 1시 5분 도착 귀국 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후 3시 5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저녁 6시 30분 도착이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 소요되며, 에어부산의 신형 항공기인 A321neo 항공기가 투입된다. 특히, 이번 노선은 주간 항공편으로 편성되어 여행객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에어부산의 괌 노선은 지난해 4월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이후 재개되는 첫 관광노선으로 지역에서의 해외여행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부산은 이번 부산→괌 노선을 시작으로 점차 국제선 하늘길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운항 항공사로 선정되어 취항 예정인 부산→사이판 노선은 올해 취항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무격리 입국 허용 국가를 중점으로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부산-괌 노선 항공편 탑승 시 이용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괌 현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부산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 도시락 및 코로나19 예방물품 후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11월 11일(목)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산지역 독거노인 어르신 300명에게 건강도시락과 코로나19 예방물품을 후원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봉사활동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식 감자탕과 밀반찬도시락, 코로나19 감염 예방물품(마스크 및 제균티슈)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누구든지 안심하고 편안하게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등반이 의자 등 시설을 새로이 개선하기도 하였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도시락이 아닌 것 지은 따뜻한 밥을 직접 대접 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이 빨리 도래 하길 바란다”라며 “거래소는 이번 도시락 지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 후원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그룹

백정호 회장 부산메세나협회 초대 회장 취임



부산 기업과 예술단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부산메세나협회가 11월 13일(일)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 2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부산메세나협회는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 후원기관으로 부산지역 기업들의 예술단체 지원을 활성화 하고, 지역의 예술후원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초대 회장에는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이 추대되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KBS교향악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또한 백 회장은 지속적인 예술단체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후원자로 평가받고 있다.

백 회장은 “부산 기업과 예술단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지역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에도 기업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의 메세나단체는 전국적인 사업망을 구축하여 기업 메세나활동의 지역 확산 및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한국메세나협회와 경남, 세종, 제주, 부산의 메세나단체가 사업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광주, 대구 등 광역도시로의 사업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지역 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성금 2억원 전달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하였다.

남부발전은 11월 15일(월)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승우 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성금은 ▲부산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대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기기 지원 ▲청년 니트족 자립역량 강화사업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특히 성금 2억원 중 1.3억원은 2018년 부산 내 복지관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전기차 및 충전설비를 후원하면서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친환경 보조금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환급금이 또다시 사회 공헌 재원으로 쓰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번 성금이 일상 회복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발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일냉장(주)

오종수 회장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일냉장(주) 오종수 회장이 11월 19일(금) 제10회 ‘2021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 인사들을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오종수 회장은 34년간 한일냉장을 운영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기간 나눔과 기부를 꾸준히 해온 결과 지난 2013년 아너 소사이어티(1억 기부) 회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초고액(3억 이상) 기부자 클럽인 하이클래스 아너에도 가입하였다.

아울러 평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지역 복지시설에 물품지원과 연탄 및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으며,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종수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대응 가이드북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금식)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업 대응 가이드북 발간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공포(1.27)되자 '부산연구개발특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경영자 및 관리부서장 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발의하여 대책방안을 모색해 왔다.

먼저 지난 4월 국내 대형조선소(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산업 안전보건 지침을 확보하고 산업안전 법률전문가(법무법인 '仁義' 소속 추승우 변호사)를 섭외하여 4개월간 컨설팅을 통해 가이드북 원고를 제작하였으며, 해당 원고에 대해 주요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산업안전 보건 담당자 자문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검수 결과를 반영하여 10월말 최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기업 대응 GUIDE BOOK」을 발간하였다.

가이드북에는 ▲기존 산업재해 규제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기업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약 500부를 발간하여 지난 11월 2일 조합원업체(340개사)에 배포하였다.

이울러 조합은 11월 15일(월) 조합원업체와 서부산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대응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조합원업체 대표 및 산업안전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이드북 컨설팅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仁義' 소속 추승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핵심 요소로 ▲경영자의 자구적 노력, ▲근로자 적극 참여 유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관리, ▲도급·용역·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금식 이사장은 "조합에서는 일차적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준비해 왔다"며 "조합에서 발간한 가이드북과 설명회를 통해 법안 시행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조합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직장인이 바라 본 '우리회사' 기업문화 실태 조사

지역대표기업들의 변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이식 중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정성엽

부산 직장인이 바라 본 우리회사 기업문화 실태 조사는 기업 문화를 업무와 조직으로 구분해 의견을 묻고 최근 직장인의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보수나 보상체계, 근무여건 등 직장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부산의 매출액 상위 200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300명이며, 매출액 상위 200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86개사, 도소매업 48개사, 건설 및 부동산 관련업 39개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매출 상위 기업들의 조직문화는 과거의 경직된 수직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대체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화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차 및 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는 편이다 |



| 업무가 끝나면 상사가 남아있어도 퇴근 할 수 있다 |



| 출근시간보다 여유있게 출근해 업무준비를 마쳐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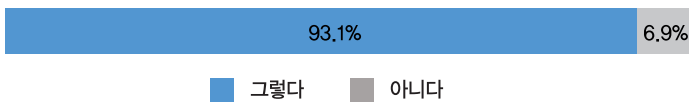
■ 그렇다 ■ 아니다



조사에 응답한 직장인 91.7%가 연차나 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다고 했고, 83.4%는 업무가 끝나면 상사가 있어도 퇴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워크숍 등 팀빌딩 활동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팀빌딩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동료간의 유대감과 사적인 친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8.0%가 공감했다.

또한 93.1%가 현 직장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장기 근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신뢰감과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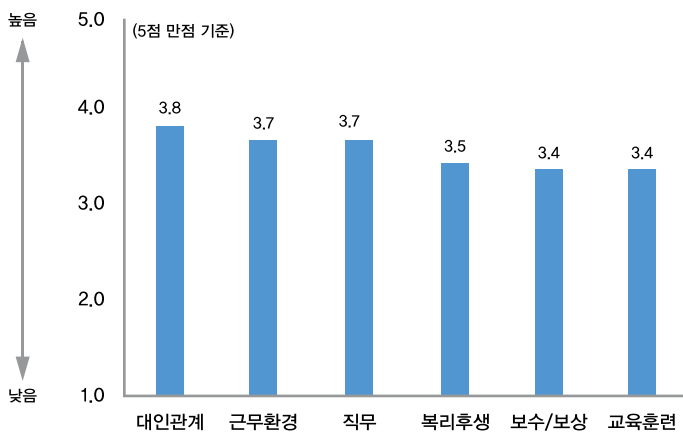
| 조직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오래 근무할 의향이 있다 |



하지만 이런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왔다. 보수·보상, 근무환경, 직무, 교육훈련, 대인관계, 복리후생 등 6개 평가요소별 만족도(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항목이 없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리후생(3.5점), 보수·보상(3.4점), 교육훈련(3.4점)과 같이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된 평가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는 지역기업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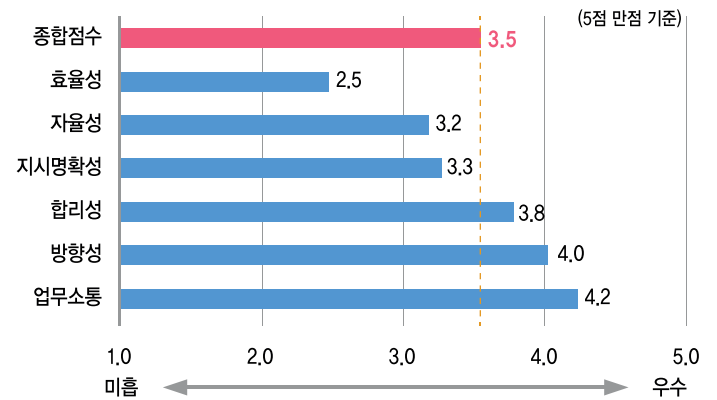
| 부산 직장인의 조직생활 평가 항목별 만족도 |



지역기업은 업무문화에 있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율성, 효율성, 합리성, 지시명확성, 소통, 방향성 등 6가지 업무문화 평가요소에서 종합평점(5점 만점)이 3.5점이 나왔다.

평가기준별로는 소통(4.2점)과 방향성(4.0점), 합리성(3.8점) 등에 대한 평점이 전체 평점(3.5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는 업무추진 시 직원 상호간에 소통이 원활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합리적 수준에서 비교적 잘 정립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부산 직장인의 조직생활 평가 항목별 만족도 |



반면, 지시명확성(3.3점), 자율성(3.2점), 효율성(2.5점) 등에서는 낮은 평점을 받아 업무와 관련한 정보전달과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에 있어 하위 직급의 자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효율성은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업무 효율성이 낮을 경우, 노력 대비 성과가 낮아 조직 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조사 대상 직장인들이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 자기개발이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건강 28.9%, 재테크 14.4%, 연봉 12.3%, 승진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불고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워라벨을 추구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승진, 연봉인상보다는 자기개발, 건강, 재테크 등 개인적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가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대표기업들이 기업문화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조직 관리와 효율성 증대 등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기업 전출입 실태 분석

부산 전출입 기업 대부분 업력 5년 내외,
매출액 10억 미만의 소기업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정성엽

지역기업의 역외 이전과 타 지역 기업의 역내 전입에 대해 앞으로는 단순한 기업의 숫자보다는 전출입한 기업의 규모와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상법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신청현황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주)의 2020년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 1,676개사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역외로 전출한 기업은 927개사였고, 부산으로 전입한 기업은 749개사로 전출기업이 전입기업보다 178개사가 많았다.

| 부산지역 업종별 전출입 기업 현황(2020년) |

단위: 개, %

전출 (부산 → 타시도)				전입 (타시도 → 부산)			
구분	업종	기업수	비중	구분	업종	기업수	비중
1	건설업	221	23.8	1	건설업	221	23.8
2	제조업	188	20.3	2	제조업	188	20.3
3	도매 및 소매업	168	18.1	3	도매 및 소매업	168	18.1
4	서비스업	143	15.4	4	서비스업	143	15.4
5	부동산업	107	11.5	5	부동산업	107	11.5
6	정보통신업	45	4.9	6	정보통신업	45	4.9
7	운수 및 창고업	29	3.1	7	운수 및 창고업	29	3.1
8	기타	26	2.8	8	기타	26	2.8
전체		927	100.0	전체		927	100.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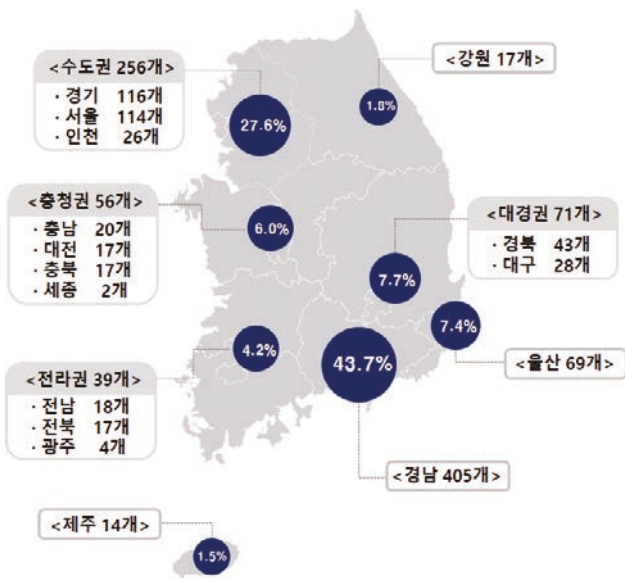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출기업 중에는 한국캘러웨이골프(865억원), 세경토건(638억원), 명성인더스(211억원), 동화일렉트로라이트(169억원) 등이 부산을 떠났다. 반면 전입기업 중에는 APT 건설업체인 범양건영(1,491억원)을



필두로 LPG 도소매기업인 부경에너지(833억원), 물류기업인 국보(532억원), 제조기업인 이노플(468억원) 등 비교적 매출규모가 큰 기업들의 신규 유입이 눈에 띈다.

전출입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약 70%가 경남(43.7%)과 경기(12.5%), 서울(12.3%)로 옮겨 갔고, 특히 이중에는 경남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산으로 전입한 기업 역시도 경남에서의 이전이 전체의 40.7%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7%), 경기(12.1%)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액 10억 이상 전입기업이 가장 많이 입주한 곳은 강서구와 해운대구, 기장군이었다.

| 부산기업 전출(역외 이전) 지역별 이전 현황 |



전출입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실제 927개 전출기업 중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23.8%, 2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업 18.1%, 서비스업 15.4%, 부동산업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입기업 749개사 중에는 제조업 비중이 2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도소매업이 19.3%, 건설업이 18.0%, 서비스업 15.4%, 부동산 13.8% 등으로 나타났다.

전출입 기업의 매출 규모는 대다수가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부산을 빠져나간 기업의 85.3%가,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의 86.1%가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었다. 반면, 전출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전체의 1.6%에 불과했고, 전입기업도 매출 100억원 이상은 2.4% 지나지 않았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으로 특정할 경우 기업수는 전입업체(104개사)가 전출업체(136개사)에 비해 작지만, 매출액 규모로는 오히려 전입업체(8,401억원)가 전출업체(7,174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 부산지역 매출액 규모별 전출입 기업 현황(2020년) |

단위: 개, %

전출 (부산 → 타시도)			전입 (타시도 → 부산)		
매출액 규모	기업수	비중	매출액 규모	기업수	비중
100억 이상	15	1.6	100억 이상	18	2.4
10억 이상~100억 미만	121	13.1	10억 이상~100억 미만	86	11.5
10억 미만*	791	85.3	10억 미만*	645	86.1
전 체	927	100.0	전 체	749	100.0

* 매출액 정보 미상 기업 포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이는 지역기업의 역외 이전과 역외 기업의 부산 전입을 단순히 개체 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매출규모, 고용인원 등 이들 기업들의 전출입이 지역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전략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전출입 기업들의 평균 업력은 대부분이 5년~6년 내의 신생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전출기업의 60.4%, 전입기업의 58.3%가 업력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었다. 반면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전출한 경우는 8.0%에 불과했고, 전입한 경우도 10.1%에 그쳤다.

| 부산지역 업력별 전출입 기업 현황(2020년) |

단위: 개, %

전출 (부산 → 타시도)			전입 (타시도 → 부산)		
업력(사업 존속 기간)*	기업수	비중	업력(사업 존속 기간)*	기업수	비중
5년 미만	560	60.4	5년 미만	437	58.3
5년 이상~10년 미만	215	23.2	5년 이상~10년 미만	162	21.6
10년 이상~15년 미만	78	8.4	10년 이상~15년 미만	74	9.9
15년 이상	74	8.0	15년 이상	76	10.1
전 체	927	100.0	전 체	749	100.0
평균 업력 5.5년			평균 업력 6.1년		

* 설립일자 기준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함께 창업 5년 미만의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전출입과 관련해 과거에는 주로 역외 유출기업의 수에 매몰된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역내로 전입해온 기업이 주는 경제적 영향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혁신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충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부산 대규모 집객시설 및 항공·여행 업계 동향 모니터링

부산 대규모 집객시설,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 기지개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정성엽

호텔, 대형 유통가, 관광휴양시설 등 지역의 대규모 집객시설들이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일상회복에 대한 준비와 기대로 분주하다. 하지만 항공, 여행 업계는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 방역체계 아래서는 여전히 일상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어 업태별로는 다소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집객시설인 호텔, 백화점, 문화·공연·전시컨벤션시설, 관광휴양시설과 지역의 항공,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호텔을 중심으로 한 관광숙박업계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행사 대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면서 연말특수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		제한 없음
운영시간	(유흥시설만) 05~24시	제한 없음	
행사집회	접종 여부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전환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실제, 벌써부터 해운대 지역의 대형 특급 호텔의 경우 연말 행사장 잡기가 힘든 상황이다. 해운대에 소재한 A호텔은“위드코로나 시행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연말 행사, 세미나, 워크숍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B호텔 역시“방역 규칙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행사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했으며, 기존 국내 관광객 수요와 호캉스 문화의 확산으로 숙박 이용객이 꾸준한 가운데 위드코로나로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지역의 관광·컨벤션 시설에서도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으로 여전히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없어 지금 당장은 업황이 급격하게 반전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송도에서 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C사는 매출 회복이 기대되지만 지금 당장은 사적 모임 제한이 12명으로 되어 있어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안 크루즈 업체인 D사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 매출이 증가했고, 일상으로 회복이 안정되면 내년 휴가철에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도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실제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 마다 감염인원이 증가하며 단계가 재조정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만큼, 지역 관광시설은 당분간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보수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컨벤션 업체인 E사 역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운영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 때마침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것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역의 대표 컨벤션 기업인 벅스코도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마케팅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다만 전시컨벤션 업계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 전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유통업계도 일상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F백화점은 매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기획하고 있었고, 11월 주말 매출이 위드코로나에 따른 매출 회복을 가능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항공, 여행업계는 여전히 코로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웃바운드 여행만 취급하는 지역의 한 여행사는“문의가 조금 늘긴 했지만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노선이 여전히 막혀있고,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주요국에서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고 있어, 큰 기대보다는 12월초 항공사들의 노선 운항계획 발표에 맞춰 대응 할 것이다”라고 했다.

H여행사의 경우도“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최근 학교로부터 수학여행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여행관련 업무를 다시 정상화하고 직원들도 정상 출근을 시켰지만, 여전히 상황이 불안정해 추이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정부의 김해공항 발 사이판, 광 노선 운항재개 결정에 따라 운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으며, 김해공항 발 국제선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를 바라고 있었다.

위드코로나로 소비시장 전반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항공, 여행 업계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감염 재확산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단기간에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역시 산업별, 업종별 맞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 러시아 수출할 때는 'GLN', 대한상의에 문의하세요 |

러시아 정부는 금년 7월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등 구 소련권 5개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보증 인증서에 제품 생산업체 또는 생산공장을 'GLN'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GLN (Global Location Number)은 유통매장 계산대용 상품 바코드와 마찬가지로 GS1 표준의 하나로서, 기업 식별을 위해 활용되는 국제표준 코드이다. GLN은 기업의 식별뿐만 아니라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의 식별에도 이용되고, GS1 표준을 사용하는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보다 활용 범위가 넓다.

GLN은 전자문서 교환(EDI)에서 송신업체, 수신업체 표시에 활용되기도 하고, 박스, 팔레트 등의 배송처 표시를 위해 물류용 라벨에 바코드로 인쇄되기도 한다. GLN을 사용하려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을 통해 유통표준 코드 회원 가입 후 업체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GS1 Korea 홈페이지(www.gs1kr.org)에서 관련 자료와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매월첫째 주 화요일 15:00~16:00)도 신청 할 수 있다.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경제학 |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안방을 점령했다. 오징어게임은 9월 17일 개봉 이후 4주 간 전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하루 인생들의 서바이벌 게임이다. 불평등과 부조리, 그리고 경쟁을 한국적 놀이에 투영시켰는데 단순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스토리가 시청자의 공감을 산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250억 원을 투자해서 1조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의 성공에 힘입어 3분기 유료 가입자가 약 440만 명 증가했고 전체 유료 회원수는 2억 1,4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오징어게임이 성공하면서 데이터 트랙픽 폭증 사태를 낳자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이슈가 부각됐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인터넷 통신망에 대가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며 국내에 7,700억 원을 투자했고 1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5조 6,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렇듯 잘 만들어진 드라마 한편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다만 우리손으로 만든 작품이 외국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 - 필리핀 FTA, 친환경차 등 주요 품목 추가개방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높은 수준의 무역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FTA('07)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 4.9%p를 추가 개방했다.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특히,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는 미개방되었던 자동차관세율(5%)와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도 철폐했다.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등에서도 관세를 없애,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농수산물등 민감 품목의 경우 대부분 기존 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를 고려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 시장 가치 및 아세안 지역 FTA 현황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세계 13위)이고, 민간소비 비중이 GDP의 70%에 달하는 등,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다섯 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이러한 '신남방 FTA 네트워크'는 'RCEP'을 보완하여 시장 개방과 무역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양국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FTA 협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양국은 최소 6개월간 국내법률검토 및 행정부 재가를 거쳐, 이후 최종 국회 비준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 동네에서는 '하이퍼로컬' 플랫폼 많이 활용하세요!

Top into your neighbourhood nextdoor |

슬세권(슬리퍼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갈 수 있는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 서비스, 일명 '동네 생활권' 서비스가 비즈니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이퍼로컬 서비스란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제품 거래를 하는 지역밀착 사업으로써,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미국의 '넥스트도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는 Help Map 서비스를 선보였다. 가입자들이 자가격리로 외출이 어려운 동네주민들에게 식료품이나 약 등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데 기꺼이 동참하여 일파만파 서비스가 퍼졌다. 또한 이웃들 사이에 모임을 형성하고 상호호조를 제공하는 'Next Door Group'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하이퍼로컬 성공 사례로는 당근마켓(당신 근처의 마켓)이 있다.

판교장터로 시작한 당근마켓은 동네 중고거래 외에도 동네구인과 구직, 부동산, 중고차, 생활 서비스 등을 중개해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향후에는 청소와 반려동물, 교육, 편의점 업체등과 연계해 새로운 하이퍼로컬 서비스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대표 IT업체인 네이버도 이웃 톡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이퍼로컬 시장에 뛰어 들었다. 네이버카페를 기반으로 동네시장 장보기 등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IT 기술에 힘입은 하이퍼로컬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7.9% 성장을 기록해 2027년 2조 6,34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양한 개인의 취향 주요 증가와 기술적 편의 구현이 맞물리면서 그 활용 범위 역시 더욱 세분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네의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낼 하이퍼 로컬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기다려진다.

하이퍼로컬 비즈니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Issue & Trends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537908785) 에서 참고하면 된다.

| 다시 돌아보는 '컴패션 경영' |

최근 폭언과 인격모욕 등 직장 내에서 갑질과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 기업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플, 구글 등 실리콘 밸리를 이끄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컴패션 경영(Compassion Management)'이 확산되고 있다.

'컴패션'은 '연민' 동정심을 뜻하는데 컴패션 경영이란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다. 컴패션 경영의 대상은 조직 내외부에서 생긴 모든 고통과 아픔 등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넓은 의미에서는 직원,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가진 애로와 고통을 알아내고 조직 전체가 행동하는 경영관리 방식이다.

직원 고통 해결하면 기업가치 '쑥쑥'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컴패션 경영은 기업가치와 수익 제고와도 직결된다. 모니카 월라인과 제인 더튼은 공동저술한 <컴패션 경영>에서 "직원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업무 집중력 저하, 근무 태만, 실수, 퇴사 등으로 이어져 기업에 크나큰 역량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최종 수익을 줄이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CEO는 사람을 비즈니스 중심에 놓고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일과 조직을 바꾸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직원 고통 알아차리고 관대하게 해석해야

CEO가 직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한다면 컴패션 시스템을 갖춰도 효과가 없다. 항상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그 이야기를 관대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그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CEO는 사회적 책임(CSR)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맥락을 같이 하는 '컴패션 경영'으로 기업 활동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토대를 재정비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브리프]

매일경제신문 월간국장/경제학박사
홍기영

초거대 AI 개발 동향과 과제

- 초거대 AI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 슈퍼컴, 빅데이터, 인재확보가 관건

인간의 뇌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도전과제는 인류의 꿈이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 국가적인 투자와 기업의 개발 경쟁, 과학자와 공학도의 연구와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 개발은 규모와 속도의 전쟁에 돌입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열에서 낙오하는 국가와 기업은 미래가 밝지 않다.

기계도 반복적 경험과 연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AI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머신러닝은 학습할 수 있는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머신러닝 기술의 발달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개발됐다.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학습하고 이해하며 평가한다. 지능형 기기는 데이터에서 패턴과 이상점을 스스로 찾아내 학습할 수 있는 영리한 단계에 도달했다.

머신러닝은 한 차원 높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발전했다. 딥러닝은 뇌가 어떻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일반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며, 뇌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았다. 뉴런(신경세포)을 연결하는 시냅스(신경접합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부터 인간 의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사람이 어떻게 의식하고 기억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계획하고 상상하며 추리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하는가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를 통해 알아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AI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

자연어 대화	사람이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매출액 예측 리포트를 생성
자연어 생성	대량으로 수집된 문서에서 분석된 모든 정보를 요약 정리
음성-텍스트 변환	고객 콜센터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감정을 파악하고 추가 분석을 수행
이미지 인식	CT 스캔상의 결절을 인식하여 악성 및 양성 여부 판별
패턴 인식	고객 금융 거래의 추이 또는 특성을 분석하고 고객 계좌의 소비 데이터에서 이상점을 탐지하여 잠재적 부정행위 파악
예측	데이터의 장단기적 변동성을 파악하여 에너지 소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분류	동물 이미지를 검사, 추적한 후 생물종 유형을 분류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
인지 검색	유사 상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과 매칭하여 온라인 쇼핑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추천

※ 자료 : SAS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가 텍스트로 된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하며 추론할 수 있더라도 출력된 정보를 인간의 말과 똑같이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언어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고 데이터로 변환해 알고리즘에 입력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자연어처리(NLP : 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이용자 의도를 컴퓨터가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활용된다.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기술이 진보하면서 언어모델 기능도 향상됐다.

이제 기계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센서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한다. 특히 텍스트 및 음성을 통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하고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표현한다. 속어와 풍자, 구어 표현 등 미묘한 언어 차이까지 분석해 인간의 감정과 의도, 의미를 포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어이해(NLU :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가 구현됐다. 딥러닝과 NLU는 별도로 또는 함께 사용되는 AI 기술의 핵심이다. 컴퓨터가 전문성 있는 '만능 비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컴퓨터 비전과 로봇 공학이 결합돼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맥락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기초언어학습(Grounded Language Learning)으로 자연어이해 성능은 더욱 개선된다.

● 초거대 AI 성과와 특징

인간처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로봇의 역량은 초거대(Hyperscale) AI에 의해 구현된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다. 더욱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대규모 모델을 실행하며, 자율적인 판단까지 가능하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읽고 듣고 관찰하며 고지능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초거대 AI는 기존 AI보다 더 빠르게 더 적은 자원 투입으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까지 처리한다. 그래서 초거대 AI는 기술 판도를 바꾸고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꿈의 AI'라는 평가를 받는다. 초거대 AI가 갖춰야 할 요건은 초고성능 컴퓨팅, 복합 인공지능, 자율지능 공존기술 등 세가지다. 첫째, 초고성능 컴퓨팅은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혹은 양자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에 기반한 대규모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하는 능력을 뒷받침한다. 둘째, 복합 인공지능은 자율적 사고·학습·판단·행동이 가능한 인간 뇌 구조를 닮은 초고성능 AI 역량을 뜻한다. 셋째, 자율지능 공존 기술은 고객 응대·콘텐츠 창작·첨단소재 발굴 등 고차원적이며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거대 AI는 다양한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만물박사다. 초거대 AI는 성능을 가능하는 파라미터(매개변수)가 1조 개에 달할

수 있다. 기존 AI보다 수백, 수천 배 이상 많은 규모다. 파라미터는 뇌에서 뉴런 간 정보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시냅스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파라미터 규모가 커서 지능이 높은 초거대 AI는 기존 AI와는 다르게 특정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며 판단한다. 더욱이 초거대 AI는 자연어 모델의 순차적 학습에서 병렬처리(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았다.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처리(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성능 개선에 활용된다. 또한 자기지도학습을 통한 AI 모델은 데이터 라벨링에 의존하는 지도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시 데이터로 모델을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 개선을 이뤘다.

● 상용화 단계 진입한 초거대 AI 기술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초거대 AI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초거대 AI 서비스 상용화에 나섰다. 기업들이 초거대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의 분야별 활용 기회]

금융	제조/에너지	보건/생명과학	통신	정부
신용위험 분석	공급망 최적화	예측 진단	대화형 챗봇	스마트 시티
부정행위 적발	불량제품 추출	생체의학 영상처리	맥락기반 마케팅	센서 융합
자동금융 자문	에너지 예측	보건 모니터	네트워크 분석	안면 인식

※ 자료 : SAS

2020년 6월 미국 '오픈A'가 언어모델 'GPT-3(Generative Pre-Training 3)'를 공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거대 AI 개발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주도해 설립한 AI 연구기관이다.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췄다. 파라미터가 15억 개였던 GPT-2보다 117배나 많다. GPT-3는 소설·에세이를 쓰거나 장문의 글을 요약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일상 언어를 번역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코딩까지 해준다. GPT-3기반 AI는 서류 요약, 외국어 번역, 보고서 작성, 이메일 작성 등 사람 수준의 작업이 가능하다. 오픈AI는 지난 1월 GPT-3를 활용해 일상 언어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내놨다. GPT-3 기반 AI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300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2030년경 파라미터가 100조 개에 달하는 GPT-4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글은 2021년 2월 파라미터 수가 최대 1조 6,000억 개에 달하는 초거대 AI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공개했으며 컴퓨팅 계산 비용을 늘리지 않고도 성능을 향상시킨 혁신적인 모델 설계구조를 적용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베이징 지위안 인공지능연구원(BAAI)은 2021년 6월 파라미터 수가 1조 7,500억 개에 달하는 ‘우다오 2.0’을 선보였다. 우다오 2.0은 중국 전통 문체로 한시를 창작하고, 이미지 생성과 인식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초거대 AI 파라미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지만 아직도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과 시냅스 규모에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다.

인간의 두뇌는 수천억 개의 뉴런이 각각 수만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최대 100조 개의 연결을 이룰 수 있다.

● 한국 기업 초거대 AI 개발 동향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AI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초거대 AI 기술 없이는 한국 첨단산업이 글로벌 빅테크 파워에 종속될 것이란 위기감도 국내 기업의 행보를 서두르게 하는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전문 인력, 기술 수준을 모두 갖춘 기업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주요 기업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 현황]

네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슈퍼컴퓨터(700PF) 도입('20. 10) 2,040억 개 매개변수 규모의 AI 언어모델(Hyper CLOVA) 공개 및 상용화('21. 5)
SK 텔레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과 AI 한국어모델 'GLM' 개발협력 ('21. 4) 초기모델을 활용한 'AI 언어능력평가대회' 추진('21. 9~11)
L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수준의 지능을 보유한 초거대 AI 개발에 3년간 1억 달러 투자('21. 5) 6,000억 개 매개변수 규모의 텍스트·이미지 동시 학습 초거대 AI 하반기 공개 추진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RI, KAIST, 한양대와 '초거대 AI' 공동연구, 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21. 8) 영상·로봇 등의 복합인지, 이미지 기반 해석, 휴머니스틱 AI 등 영역 확장 추진
카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모델 TF 구성, 대규모 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민간협력 검토 중 산·학·연 협력 기반 기술 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AI 클라우드 멤버십' 구축 검토

※ 자료 : 각 사

네이버는 지난 5월 한글과 일본어에 특화된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했다. 하이퍼클로바는 GPT-3를 능가하는 204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췄다. 네이버는 우선 ‘자연어 처리’에 집중한다.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AI는 수천, 수만 건의 쇼핑 리뷰(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지식백과를 활용해 전문 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며,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나 문장에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경우 정확한 검색어로 바꿔준다. 하이퍼클로바는 ‘캐릭터와 대화’를 훌륭히 수행해 내며 캐릭터 개성을 나타내는 이모티콘도 쓸 줄 안다. 네이버는 향후 하이퍼클로바를 텍스트·음성 위주에서 이미지·음악·영상 등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LG그룹은 약 1,200억 원을 들여 초거대 AI를 개발해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조 단위 파라미터를 갖춘 ‘슈퍼 초거대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AI 인재 1,000명 육성 계획도 수립했다. LG는 콜센터, 고객상담, 제품 개발, 신소재 발굴, 항암 백신 개발, 제품 디자인 등 계열사 핵심 사업에 초거대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KT는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AIST, 한양대학교와 함께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업체 ‘AI 원팀’을 구성했다. KT는 초거대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라미터 2,000억 개 이상의 모델을 개발해 AI 음성인식 단말기인 기가지니3에 적용할 계획이다.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한 SK텔레콤은 2020년 4월 아마존웹 서비스(AWS)와 함께 GPT-2에 상응하는 첫 한국어 학습 오픈소스 기반 모델 ‘KoGPT-2’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SK텔레콤은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AI 모델 ‘GLM’ 개발 중이다. 카카오는 클라우드 기반 초거대 데이터센터를 서버 12만 대 규모로 2023년까지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7일 코엑스에서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AI Strategy Summit)’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아래 고려대학교가 ‘K-Hub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K-AI 혁신 허브 사업을 추진한다. 컨소시엄에는 국내외 57개 대학·119개 기업·18개 연구소 등 총 2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초거대 AI 핵심기술 개발과 ‘꿈의 기술’로 꼽히는 뇌파 기반 음성합성 등 분야별 특화 AI를 개발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혁신 민관 협력 기본방향]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슈퍼컴, 빅데이터, 인재 확보 관건

한국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초거대 AI 역량을 빛낼 수 있다. 그러나 초거대 AI 개발에 가장 큰 장애물은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 인력 확보다. 슈퍼컴퓨터는 초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정부와 기업·연구소가 하나로 뭉쳐 슈퍼컴 확보에 거금을 쏟아붓는다. 오픈AI가 GPT-3를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엔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컴 구매 지원이 있었다. 일본은 후지쯔가 개발한 '후가쿠'는 작년 11월 슈퍼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세계 500대 슈퍼컴' 중 226개를 보유할 정도로 슈퍼컴 강국이다.

네이버는 국내 기업 최초로 정상급 슈퍼컴을 지난 해 10월 도입했다. 네이버의 '슈퍼팟(Superpod)'은 700페타플롭(Petaflop·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를 뜻함) 이상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슈퍼컴이다. 정부의 K-AI 프로젝트가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 컴퓨팅 인프라 갖추기 위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요망한다.

정부는 첨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AI 플랫폼을 조성하고 제조, 유통,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AI 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급 인재 확보도 큰 문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인력은 기업당 최대 1,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 10여 개의 AI 대학원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한 해 4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대학원에서 박사급 인력 배출까지 3~4년이 더 걸리고, 해외 유출 인력까지 포함하면 고급 인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외부 인재 영입 노력이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은 내부 교육으로 자급 자족에 나설 수밖에 없다.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초거대 AI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저작권법·특허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기업에서는 초거대 AI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 사항 및 적용 방법을 정부에 제안해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 차원의 AI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전, 목표와 전문성이다. 또한 기업은 AI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엔지니어를 훈련, 양성하는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AI의 연료인 데이터베이스를 확고히 구축하고 전략, 마케팅, 생산, 재무 등 기업활동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해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상담

Management Consultation



안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순원

Tel : 051-920-5000 Fax : 051-802-8448 E-mail : schoi@akcpa.co.kr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휴양시설 등을 임직원이 무상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 사실관계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임

▶ 질의

-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신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무상 사용용역이 숙박용역인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056, 2021.08.27)

노무상담

Labor Consultation



흥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주재현

Tel : 051-464-0306 E-mail : nosa0306@hanmail.net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60일간 질병 휴직을 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1개인지 26개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근율’의 의미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 일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같은조 제6항에서는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중인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③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 육아휴직과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고,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행정해석은 약정 육아휴직 기간과 질병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에 행정해석을 변경(2021. 8. 4.자)하여 이러한 기간을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아, 결근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즉, 개인적 사정 등에 따른 질병휴직기간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절한 쟁의행위기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입사 후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노동부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1년에 11일)에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을 추가하여 합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1년(2019.1.1.-2019.12.31.까지)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들은 11일분(1개월 개근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5일의 유급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상담

Patent Consultation



옥특허법인 대표변리사 김영옥

Tel : 051-862-6622 E-mail : ok@okpat.co.kr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를 지칭하는데,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 몰래 종업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따른 배임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 직무발명의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사용자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승계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그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따라서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종업원은 직무에 관한 발명이 완성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출원을 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 몰래 종업원 단독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경우는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하고 당해 출원이 특허등록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른 상당한 보상(보상금 또는 실시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상담

Tariff Consultation



부산상공회의소 상주 관세사 김유진
Tel : 051-990-7125 E-mail : yjin4277@naver.com

당사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로 발효 예정인 RCEP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본은 한국과 FTA체결국이 아니라 기존에 일본과 물품 수출입 시 FTA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RCEP이 발효되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RCEP 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RCEP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해주는 세계 최대 규모 MEGA FTA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한국·중국·일본,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공식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참여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비준을 거쳐 빠르면 2022년 발효가 예상됩니다.

일본과 FTA체결 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1~5위(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RCEP 발효는 앞으로 회원국 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CEP은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CEP 발효 시 일본과의 교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CEP체결에 따라 일본에 대해 83% 수준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일본 또한 한국에 대해 83% 수준으로 관세철폐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 민간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품목의 관세는 비교적 장기간인 10~20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RCEP이 발효되면 일본 수출입 물품의 RCEP 적용 관세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 등을 정확히 해석하여 RCEP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아세안 및 중국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과 달리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이 허용되어 사전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는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발행 가능합니다. RCEP은 인증수출자 여부에 따라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두 방식으로 운영예정입니다.

수출기업이 사전에 RCEP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서 자율발급 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상황에 맞게 사전 준비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인재육성, 지역별직업 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공동훈련 사업입니다.



▶ 2021년 하반기 훈련과정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형태	훈련일수	훈련시간
전기용접 일반	향상	1	8
특수용접기본 일반	향상	1	8
가스텅스텐아크용접(TIG용접)	향상	1	8
NX(UG) 3D Modeling	향상	1	8
PLC기본(MELSEC)	향상	2	16
(XGI) PLC과정	향상	1	8
기계정비(공압제어)	향상	1	8
기계정비(유압제어)	향상	1	8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산학협력처
T 051-330-7751 ~ 4 F 051-336-5603
H www.kopo.ac.kr/busan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고속연일학습병행(P-TECH) 사업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의 약어
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도제학교특성화고 졸업생 및 일학습병행 이수자를 전문대 단계 고속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론과 현장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혜택 |

- ◆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기업당 4개 직무까지)
- ◆ 현장훈련(OUT) 비용 지원 : 기준단가(4,000원)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지원율

〈 유형별 지원율 (기준 지원율 100%) 〉

① 훈련대상		② 훈련종류		③ 훈련직종		④ 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직종	기본직종	중소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30%

-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 (월별) 1인당 30만원
- ◆ 외부평가합격시 : 1인당 480만원
- ◆ 기업현장교사 수당 : (연간) 400만원 ~ 1,600만원(1인~13인)
- ◆ HRD담당자 수당 : (연간) 300만원
- ◆ 병역특례업체 우선 선정,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P-TEC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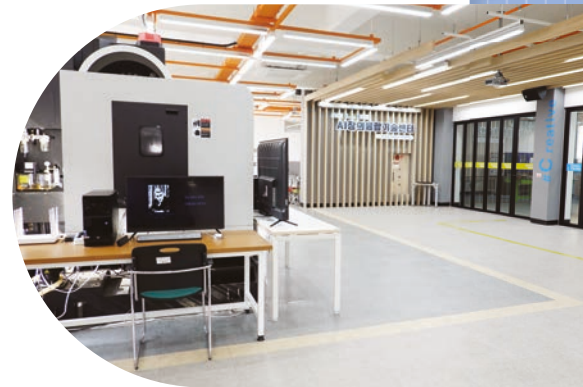
- ◆ 융합전기전자과(스마트전자과 + 기계시스템과)
- ◆ 자동제어기기제작 L3(반도체, 전자제어 기술, 3D프린터 기술, CAD, CAM 기술 등)
- ◆ 연간 44주, 2년간 교육훈련(한 학기 22주, 토요일 수업) 후 산업학사 학위 부여
- ◆ 등록금 전액 지원
- ◆ 전자산업기사 및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 병행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산학협력처

T 051-330-7758~9 F 051-338-2097 H www.kopo.ac.kr/busan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지원 사업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교육 비용 無 • 교육실시 관련 행정 절차 대행 • 우수한 강사진 및 교육 인프라 활용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해기사분야 '우수 해기사 역량 강화 교육'



- 선박 리더십 및 관리 기술 교육
- 고전압 운용교육/직무교육



- 해기사 직급별 직무 교육 (선기관장, 1,2,3항기사)
- 탱커선 초임사관 직무교육



- 스마트선박 전자제어 엔진 심화
- SSBT 실무
- 선박평형수관리교육



- 액화가스탱커
- 유조선탱커
- 케미커탱커 직무교육



- ERS(선박기관모의조종)실무
- Safety Officer
- SHS 실무

조선기자재분야 '조선기자재 특화 인적자원개발'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설계(AM)
- 선박보조기계실무



- 설계도면분석을 통한 부품모델링
- 선박개조설계(retrofit)



- 냉동 공조 시스템 실무
- IoT융합 스마트 팩토리 구축



- 조선해양기자재 진동규격 및 측정평가



- 스마트 자동화제어시스템 실무
- 원격감시 제어기기 운용(PLC)

해양플랜트분야 '미래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Commissioning & Service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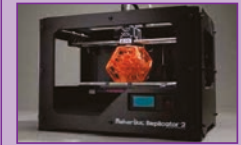
- 해양플랜트 서비스실무



- 해양플랜트 운용 실무



- Ex Awareness(방폭)
-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실무



- 3D프린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모델링

직무분야 '소양 교육 및 전문적 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



- 품질경영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축실무



- 사내표준화(QM, QC)관리 실무
- 스마트공장 엔지니어링 문제해결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전환



- 제안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실무
- 응용프로그램 활용 향상 중장년JCT



- 선박 역량강화 스킬업

ESG를 실천하는 나눔명문기업

나눔명문기업이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 기부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이끌고, 기업 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입니다.

회원의 자격

정 회원 | 5억 / 3억 / 1억원 이상 기부한 법인기부자
약정회원 | 3년 내 1억원 이상 약정한 법인기부자 (가입시 2천만원 기부)

회원 구분

정회원			약정회원
 나눔명문기업 Corporate Philanthropy Leader 그린 1억원 이상	 나눔명문기업 Corporate Philanthropy Leader 실버 3억원 이상	 나눔명문기업 Corporate Philanthropy Leader 골드 5억원 이상	 1억원 가입시 2천만원



회원 예우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참여기업명단 게재
- 맞춤형 사회공헌 결과보고
- 정부 유공자 훈/포장 및 대내외 사회봉사상 추천
- 회보 연간보고서 등 주요 간행물 등재
- 기타 회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등

나눔명문기업 참여방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사랑의열매의 다양한 경험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ESG 경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일보사 6층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051-790-140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대강당 1F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m²)
 현판규격 : 710cm×7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400,000원	오후(14:00~18:00)	500,000원
초과(1H)	110,000원	1일	800,000원
냉, 난방	140,000원		

상의홀 2F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m²)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400,000원	오후(14:00~18:00)	500,000원
초과(1H)	110,000원	1일	700,000원
냉, 난방	140,000원		

국제회의장 2F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m²)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280,000원	오후(14:00~18:00)	350,000원
초과(1H)	80,000원	1일	500,000원
냉, 난방	100,000원		

중회의실 2F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m²)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9:00~12:00)	220,000원	오후(14:00~18:00)	280,000원
초과(1H)	70,000원	1일	400,000원
냉, 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할인(50%) : 회원업체(당연) **할인(20%)** : 회원업체(임의), 3일(전일)연속 사용업체 / 업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서울역사 내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나보세요



이용대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

위 치 서울역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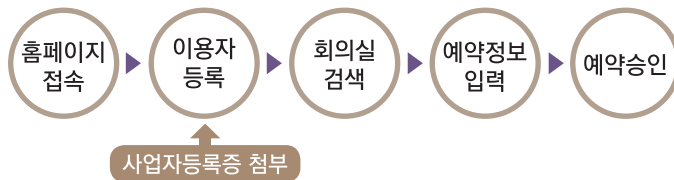
운영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 휴관

이용방법

- 사전예약(홈페이지, 모바일) **우선**
- 홈페이지 www.dongnambiz.kr
- 모바일 m.dongnambiz.kr
- 현장등록

이 용 료 무료

예약절차



라운지

회의 및 간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커피, 차 등 음료가 있는 휴게 공간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비즈니스 미팅룸



사무기기

복합기(컬러복사, 스캔, 팩스)
노트북(윈글-MS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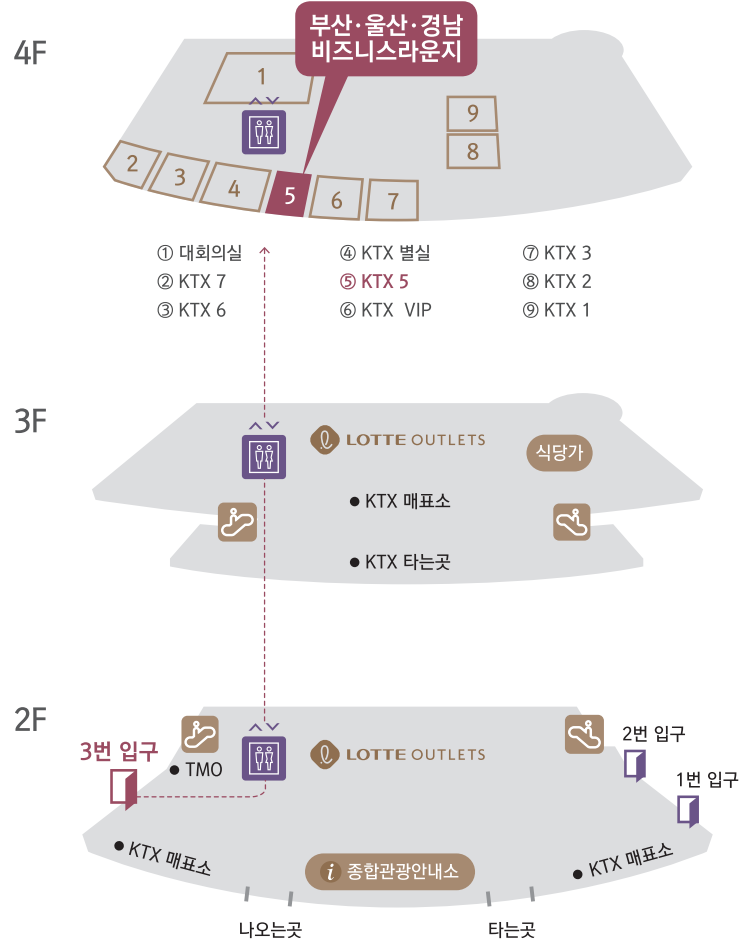


신문 및 간행물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기업지원사업안내 책자 및 브로슈어

오시는 길

서울역 2층 또는 3층에서 3번 입구쪽 엘리베이터 이용



문의 T. 02-313-1888 F. 02-313-1890
www.dongnambiz.kr / m.dongnambiz.kr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숙성증류주 **혼**

40년 장인의 기술과 300일의 향아리 숙성으로 담아낸 혼
프리미엄 숙성증류주 혼으로 세상에 없던 깊이를 느껴보세요



DRINK SMOOTHLY 골든블루는 부드러운 음주문화를 선도합니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골든블루